

상상하는 모든 것 실험하는 공간

지난해 가을 광주역 인근에 문을 연 '여그' (광주시 북구 무등로 190)는 다채로운 도전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5층 규모의 옛 한방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여그'는 '사회 실험 공간'을 표방한다. 청년 혁신가, 문화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입주자들과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규정되지 않은 이 공간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험할 수 있는 아지트를 꿈꾼다. '여그'에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9개 업체·단체·개인이 입주해 있고 콜라보레이션이 자연스레 이뤄진다. 운영 주체는 코끼리협동조합(이하 코끼리)이지만 이곳에 머무는 이들이 함께 '완성'해 가는 공간이다.

'코끼리'는 광주의 메이커스 운동을 이끌어온 단체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Maker)이 모여 경험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며 발전시키는 메이커스 운동은 혁신적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디지털 제조 장비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창작 활동 공간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이 그 핵심이다.

임동 시장을 거쳐 동명동에서 메이커스 스페이스, 게스트하우스, 카페가 어우러진 공간을 몇년간 운영해온 코끼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무모하지만, 과감한 선택'을 했다. 임대료를 비롯해 매번 장비 등을 철거·재설치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아예 '우리만의 공간'을 확보하자'는 생각. 지금까지 교류를 해왔던,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문화 그룹 '여러 단체'가 함께 사용하면 꼭 어려운 일만도 아닐 것 같았다.

마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저렴하게 공간을 구입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라 개별 공간을 확보하는데 적합했고,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입주했다.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협업을 할



'여그' 입주업체인 코끼리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메이커스 공간.

혁신적 창작 활동 지원 사회 실험
5층 규모 한방병원 매입 리모델링
코끼리협동조합·동네주민 등 9개 단체
메이커스 스페이스·공유오피스 등 갖춰

수 있는 단체, 사업적 마인드가 있는 단체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현재 '여그'에 입주한 업체는 사진 작업과 문화기획을 하는 '동네주민', 파티문화 관련 업체 '리얼 플랜광주', 공공기관과 혁신가들의 매칭 등을 진행하는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아모티협동조합, 소프트 웨어 개발업체 디투리소스, 문화기획단 유블라 등 모두 9개 업체다. 이들은 공간 규모에 따라 20~35만원의 월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건물 운영 등은 '반상회'를 통해 진행한다.

'여그'는 메이커스스페이스, 공유 오피스, 입주업체들이 활용할 촬영 스튜디오, 회의실, 공유주방, 옥상정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코끼리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온 경험을 살려 입주자 뿐 아니라 국내외 메이커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이커 레지던시 공간도 마련했다.

1층에 들어서면 무인 편의점이 인상적이다. 키오스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입주 업체 디투리소스가 시범 운영하는 공간이다. 또 대형 탁자가 자리하고 있는 세미나 룸과 회의실 등을 갖춘 '남의 공간'도 눈에 띈다. 옥상에는 이벤트 무대, 간이 주방 등 '쉼'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지하 1층은 코끼리가 운영하는 '메이커스' 공간이다. 발달한 실험 정신으로 상상을 구체화하고,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는 곳이다. 디지털 가공, 목공·철공, 유리, 도자, 3D 프린팅, 전기·전자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다.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앞으로 CD탄테이블 만들기, 가구 만들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건물에 대한 수익성도 제고해야하는 등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이곳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끼리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뤄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어 즐겁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지역 사회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들도 모을 생각입니다."

코끼리 협동조합 박지민 씨는 "앞으로 '여그'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신운 작가 '소설가 구보 씨의 초대' 발간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은 박태원의 장편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을 토대로 창작된 소설이다. 최인훈은 이를 70년대 초에 패러디해 연작으로 발표했다.

두 작품을 토대로 학위논문 쓰고, 최근에는 장편소설로 소설을 펴낸 작가가 있다. 1973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김신운 작가. 지난해 등단 45년 창작활동 결과물을 묶어 소설집 '귀향'을 펴냈던 작가는 이번에 '소설가 구보씨'를 모티브로 '소설가 구보 씨의 초대' (청어)를 발간했다.

이번 작품은 다섯 번째 장편소설로, 지난 소설의 열정이 오롯이 투영된 결실이다.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물리적인 시간의 단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약간의 유머나 풍자를 곁들인다면, 나는 이제 조금 답답을 해도 좋을 때가 된 것이다."

평론가 김형중의 표현대로 "풍자가 취해 마려던 도덕적 우위의 입장에 서지 않는 풍자가"라는 표현대로, 김 작가는 이번 소설에서 구보를 자신의 분신으로 등장시켜 서사를 전개한다.

이번 소설은 박태원의 구보와는 다른 점이 있다. 박태원의 구보는 스스로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라면, 김



작가의 소설은 구보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기울이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소설의 공간은 작가가 창작 활동과 교육계 활동을 했던 광주다. 그러나 소설 속 구보는 말을 하거나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채, 타자들의 말을 묵묵히 기록할 뿐이다.

소설은 극적인 사건의 전개 없이 그저 관찰자의 시선으로 전개된다. 마치 작가의 '맞닿으면서도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웠던 지난 생애'에 비추어, 그러므로 나에게도 세 권의 창작집을 펴냈다. 광주문학상과 화순문학상, 한국소설작가상을 수상했으며 1970년대 문순태·이명환·한승원 작가 등과 '소설문학' 동인으로 활동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세투쟁 전개했던 해남농민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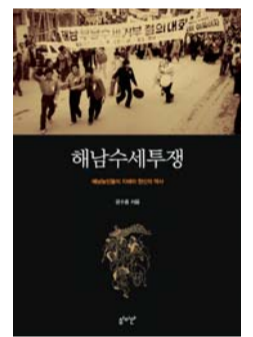
윤수중 전남대 교수 '해남수세투쟁' 출간

예나 지금이나 농사에 있어 저수지는 중요한 농업용수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 데는 그만큼의 수세(水稅)를 부담해야 했다. 나날이 오르는 수세는 농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이었다.

1980년대 후반 전국에서 처음 대중적인 수세투쟁을 전개했던 해남농민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 사회학과 윤수중 교수가 펴낸 '해남 수세투쟁' (심미안)이 그것.

저자는 1980년대 후반 수세관리를 하는 농지개발조합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토대로 책을 엮었다. 1987년 하반기부터 1989년 2월 13일 여의도 농민대회 기간 수세투쟁은 일반 농민들의 참여 속에 집단적인 시위 형태를 띠고 전개됐다. 발농사 지역에서는 고추제값받기 투쟁이 이어졌다.

또한 이 시기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7, 8월에 걸쳐 노동자 및 농민 대투쟁이 활발히 펼쳐졌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세투쟁은 전남북 지방을 기화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특히 땅



끝 해남에서 가장 먼저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는데, 농민들은 수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수세 폐지를 촉구했다.

그 결과 3년 만에 수세는 대폭 감강됐다. 이후 수세싸움에 참여했던 농민들은 다양한 농민운동에 참여하게 됐으며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책은 단지 '수세투쟁은 해남에서 가장 먼저 대중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에만 방점이 놓여 있지 않다.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히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에는 곧 농민들의 지혜와 헌신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메이커스 공간.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에 작곡가 류형선 위촉

전남도는 8일 류형선(55·사진) 작곡가를 전남도립국악단 제7대 예술감독으로 위촉했다. 류 신임 예술감독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남도립국악단의 지휘·교육 및 공연기획을 이끌어 가게 된다.

음악적 역량과 악단 운영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류 감독은 한양대 작곡과 음악학사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창작전공 예술전문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음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해오다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국립국악원에서 창작악단 감독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국악방송 '꿈꾸는 아리랑'을 진행했으며 현재 서울 정동극장 이사와 숲 엔터테인먼트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대표작으로 '모두야 꽃이야', '나무가 있는 언덕', '비에 젖은 해금강'과 다큐멘터리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 OST 등이 있으며, KBS국악대상과 기록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